

‘극적 호주행’ KIA 유승철 “꼭 가치 증명 해낼 것”

2017년 입단 후 정착 난항
구위 강점에도 제구 약점
올해 1군 1경기 출장 그쳐
다시 마음가짐부터 재정비

2017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을 받으며 KIA타이거즈에 입단한 투수 유승철(25). 직구의 수직 움직임이 KBO리그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대주로 떠올랐지만 제구 난조와 부상에 시달리며 잊혀진 유망주가 될 위기에 놓였다.

위기 속에서 그는 정신을 무장했다. 올 시즌을 야구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직구와 슬라이더 ‘투 피치’에서 벗어나고,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는 공을 줄이는데도 집중해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유승철은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에서 “항상 컨디션은 좋았다. 더 야구를 잘하고 싶어 투구 밸런스를 찾는데 집중했다”며 “밸런스에 집중한 것이 오히려 경기 운영 능력을 떨어뜨렸다. 제가 야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찾게 된 시즌이다”고 올해를 회고했다.

구위를 강점으로 평가받는 투수인 만큼 투구 밸런스 교정에 집중했으나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

유승철은 지난해에는 선발 경쟁에 뛰어



호주 프로야구 캔버라 캐벌리에 파견 중인 KIA타이거즈 투수 유승철이 지난 15일 나라본다 볼파크에서 열린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 홈경기에 구원 등판해 역투를 펼치고 있다.

들었으나 롱릴리프 보직을 받았고 21경기 19이닝 소화에 불과했다.

올해 등판은 1경기 1이닝뿐이었고, 밸런스 교정 과정에서 광배근 부상을 입으며 퓨처스리그에서도 16경기 19이닝에

그쳤다.

그는 “부상을 당했지만 이겨냈다. 이겨내지 못할 순간이 많았지만 버텼기에 좋아질 날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부끄럽지만 야구 열정이 많이 식었었다. 휴식

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면서 방법을 찾으려다 다쳐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도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힘들어하던 시기에 퓨처스 팀에 있던 이상화 투수 코치가 많이 잡아줬다”며 “야구를 내려놓지 않게끔 옆에서 관심도 주고 많이 도와줬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마음을 다잡으니 과정에서도 발전이 나타났다. 퓨처스리그가 막을 내린 후 교육리그에서 호성적을 거뒀고, 새로운 코치들과 호흡한 마무리 훈련에서는 포크볼을 새로운 무기로 장착하는 동시에 제구도 개선했다.

유승철은 “교육리그에서 성적이 좋았던 것은 마운드에서 타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다”며 “공을 던질 때 목표 지점에 집어넣는 것에만 집중했다. 스트라이크 존을 위아래 반반으로 나눠서 낮게 던지려고 노력하면서 변화구도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크볼도 새로 배우고 있는데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제구나 변화구를 모두 완벽히 제 것으로 만들고 싶다”며 “정재훈 코치는 ‘공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던져라. 볼을 던졌다면 다음 공은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넣게끔 힌트를 찾으라’고 조언해 준다. 이동걸 코치도 좋지 않은 습관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장점인 구위를 바탕으로 제구도 잡아나가기 코칭스태프 입장에서는 유승철을 전력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때마침 미국 드라이브라인 파견을 위해 호주 프로야구(ABL) 캔버라 캐벌리에서 복귀한 광도규의 빈자리에 유승철을 낙점했다.

유승철은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 홈 4연전으로 치르는 2023-2024 ABL 5라운드부터 팀 로스터에 등록돼 지난 15일 호주 데뷔전을 치렀다.

첫 등판을 1.2이닝 무실점으로 손조롭게 출발했고, 지난 17일 두 번째 등판에서는 2.1이닝 무실점으로 구원승을 챙겼다. 두 경기 만에 챙긴 첫 승리였다.

그는 “항상 스프링 캠프나 마무리 캠프 같은 비시즌에 컨디션이 좋았다”며 “돌이켜보면 자리가 없는 선수라는 생각에 뭔가를 보여줘서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욕심이었다. 정규 시즌이 아닌 스프링 캠프에 맞춰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것”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내년 시즌에는 무리해서 템포를 빠르게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의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정규 시즌 전까지 타자와 싸우는 저만의 방법을 만들겠다. 코칭스태프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저라는 좋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美 드라이브라인서 마운드 강화

윤영철·이의리 등 5명 파견
정재훈·이동걸 코치도 동행

KIA타이거즈가 미국 드라이브라인에 광도규와 윤영철, 의의리, 정해영, 황동하를 파견해 투수진 기량 발전을 도모한다. 정재훈 투수 코치와 이동걸 볼펜 코치 역시 동행해 지도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KIA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 선수 5명과 코치 2명을 파견해 맞춤형 트레이닝을 통해 구속 증가와 구위 향상 등 선수들의 기량 발전, 바이오 메카닉 등 지도 프로그램 습득을 도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수단은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해 내년 1월20일까지 33박 34일의 일정을 소화한다. 선수단은 훈련

날 바이오 메카닉 모션 캡처 및 체력 측정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후 설계된 프로그램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며 함께 파견되는 코치진과 전력기획팀 소속 데이터 분석원은 드라이브라인에서 구축되는 자료를 내년 2월 스프링캠프와 국내 훈련에 접목한다.

심재학 단장은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선수단을 파견하게 됐다”며 “코치진 역시 선진 훈련 시스템을 잘 습득해 실제 훈련에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파견을 계기로 더 많은 선수들에게 선진 야구 경험 기회를 제공해 전력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한국배구연맹 “V-리그 올스타 팬 투표 부정 행위 확인”

매크로 사용 등 5941건 적발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5~11일 실시된 도드람 2023-2024 V-리그 올스타 팬 투표에서 총 5941건의 부정 투표를 발견하고 무효 처리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문화 조성에 나섰다.

KOVO는 투표 기간 중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시간대 비정상적 회원 가입 및 투표수 변동 이상 추이 등 부정 투표 징후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투표 종료 후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으며 총 5만8117표 중 5941건의 부정 투표를 적발했다.

가장 많은 부정 투표 유형은 14세 미만

자녀 회원 가입 시 한 개 연락처로 무제한 계정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395건으로 세부 분석 결과 78개 연락처로 2244개 계정을 만들어 5395건의 부정 투표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부정 투표를 실시한 사용자는 1개 연락처로 1517개 계정을 만들어 1966건 투표를 했다. 상세 로그 기록을 분석했을 때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이 모든 과정이 1분 단위로 이뤄졌다.

총 투표수는 5만8117표로 발표됐으나 부정 투표수 차감으로 최종 총 투표수는 5만2176표로 정정됐다. 기존 발표된 선수별 투표수에도 일부 차감이 있으나 최종 선발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 **한규빈 기자**

광주여대 체육관, 공공시설 역할 모범 사례로

2015년 하계U대회 이후
체육행사 등 총 579건 대관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이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면서 수익사업도 전개하는 등 2015유니버시아드 레거시 활용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다목적체육관으로 광주시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이후 8년간 74만7854명(생활체육 동호인 제외)이 이용하며 문화와 스포츠를 접목한 공공시설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독립재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광주여대 체육관은 2015년 이후 지난 11월까지 100개월 동안 체육행사 215건(37%), 비영리행사 209건(36%), 영리행사 155건(27%) 등 총 579건(월 평균 5.8건)의 대관업무를 수행했다.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사고·시민단체 제로화를 위한 예방점검·관리로 지난 8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A등급 승인을 받기도 했다.

광주여대 체육관은 동·하계 온·난방 영향을 받는 배드민턴과 탁구 종목의 경기력 유지를 위해 냉·난방기 출구 바람 방향 변환용 덕트를 제작·설치 사계절 대회 운영을 가능하게 했고 체육관 마루바닥 보호용 합판을 구매해 각종 공연과 행사시 바닥의 내구성을 높이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같은 세심한 관리를 기본으로 광주여대 체육관은 엘리트 스포츠, 생활체육, 클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광주여대 제공

럽 활동, 학교 스포츠 등 스포츠 본연의 시설물 활용 뿐만 아니라 국내·외 스포츠 대회 유치로 학교 및 광주시의 인지도를 높였고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 수익을 창출했다.

광주여대 체육관은 올해 광산우리밀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 광주시배드민턴 협회장기, 광주시장배 생활체육 줄넘기대회, 광산남구청장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광주시장배 전국장애인보치아선수권대회, 코리아마스터즈배드민턴대회 등 26건의 체육행사와 14건의 비영리행사, 21건의 영리행사를 성공대회로 치렀다.

지난 10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킨볼대회, 11월 제8회 광주시장기 플로어대회 등 신생대회를 유치해 신생 종목 저변확대는 물론 꿈나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일조했다.

열악한 운동장 사정으로 위축되고 있는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과 학내 예술제, 학교간 연합행사(체육대회)를 위한 공간과 장비를 지원, 학교·지역간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으

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여대 체육관은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들, 청소년 대표, 꿈나무 대표팀 전지 훈련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체조경기장으로 성공대회를 이끌며 리듬체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던 광주여대 체육관은 그해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첫 동계 전지훈련을 이곳으로 오면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여대 체육관은 양궁(광산구체육회·다움스포츠클럽)과 배구(동호인), 농구(팀케이농구교실·동호인), 배드민턴(유니클럽·광주클럽·동호인)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광산구민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의 생활스포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기영 광주여대 체육관장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고 ‘시민 건강 지킴이’로서 체육관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공연을 유치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도 보탬이 돼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